



#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 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 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NO	대상자명	관 계	구체적 전도방법	영적수준	비 고
1					
2					
3					
4					

수준1) 결신할 수 있음    수준2)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3) 전도자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4) 기독교에 대하여 알지만 부정적임    수준5)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모름

##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19절]

NO	성 명	기도제목
1		
2		
3		
4		
5		
6		

## 교회를 위한 기도

- 한 기흥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4차 일천번제 특별 새벽기도회(1/22/2024~10/17/2026)
  - 예순모임(8/14)
  - 신생아 축복기도(8/17, 3부 예배 시)
  - GTD 209 남자기(8/24~27)
  - 2025 성경통독 및 퀴즈대회(8/30 단체 및 개인전 필기 시험, 8/31 개인전)



#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가정교회 예배안 2025. 8. 17

### 8월 셋째 주: 엘리야의 세 번의 기도 (열왕기상 18:41-46)

#### ■ Welcome

이번 한여름 성령집회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은혜되었던 단어, 광경,예화는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또한 지난 주의 Grace Time을 통해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를 나누어 봅시다.

#### ■ 본문: 열왕기상 18:41~46

41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42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43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편을 바라 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 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일곱번까지 다시 가라 44 일곱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45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46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 ■ 서론

‘엘리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갈멜산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한 기도이다. 그런데 사실 그 한 사건과 연관된 기도가 무려 세 번씩이나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이 세 번의 기도는 각각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이 세 번의 기도는 모두 다 응답을 받았다. 우리는 이 기도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 ■ 관찰 질문: 엘리야 선지자가 한 기도는 무엇인가?

#### 해답 1. 갈멜산 제단에서의 기도

갈멜산 제단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을 내리게 하는 기도이다. 그 당시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은 온 이스라엘에 우상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배하던 제단을 다 허물어 버렸다.

이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를 그치게 하신다. 온 땅에 심한



#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기근이 들어 고통을 당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뭄을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아합은 엘리야가 저주하여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알아보자고 하여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결전을 치르게 되었다.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몸이 상하도록 자신의 신에게 기도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제 엘리야가 나서서 갈멜산 제단의 기도를 드린다. 이 갈멜산 제단의 기도는 영적전쟁에 대한 기도이다. 예배단을 다 무너뜨리고 우상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징계하고,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영적전쟁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전쟁이 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교회를 공격하며 전도의 문을 막는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엘리야처럼 영적전쟁을 하여서 승리해야 한다.

(열왕기상 18:30~31)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1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열두 개를 취하니...”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자체보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모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백성들과 제단을 수축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영적전쟁이 있을 때에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갈멜산 제단에서의 기도를 하므로 승리할 수 있다.

## ☼ 적용 질문 1

- 1)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감격을 나누어 봅시다.
- 2) 나의 예배가운데 다시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무너진 것,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해답 2.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기도

갈멜산 꼭대기의 기도는 중보기도를 하므로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이다. 하나님은 먼저 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증명하셨다.

이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한다. 그곳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과 기도자만 만나는 산꼭대기 제단이다. 그는 그곳에서 갈멜산 제단에서 기도했던 것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비가 쏟아진 것이 아니다. 기도하다가 중에게 어떤 하늘의 징조가 있는지 계속 묻는다. 물을 때마다 중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구름 한 장도 없습니다.’ 라고 보고한다. 이렇게 무려 여섯 번이나 반복되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일곱 번째 또 무릎을 꿇었다. 그제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

이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되 끝까지 하라는 의미이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다.



#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기아대책과 CBS의 공동기획 [더 미션]의 이야기:** 우간다의 초등학교의 점심 급식 이야기

방송에서 흘린 한 소녀의 눈물의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1,500명의 결연 가정에서 일만 명이 결연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흘린 7번의 처절한 기도이다.

## ☼ 적용 질문 2

- 1) 기도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랬는가?
- 2)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 해답 3.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기도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기도는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 중에 자신을 위하여 한 기도이다. 엘리야는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믿고 다 돌아올 줄로 알았으나 놀랍게도 어리석은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또한 왕비 이세벨의 살인 위협을 듣고 엘리야는 낙심하여 유대 광야로 도망친다. 그는 지치고 상한 마음과 육신을 이끌고 광야 한복판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한다.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한 이유는 심신이 너무 지쳤기 때문이다. 그가 낙심한 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지쳤기 때문이다. 지쳐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위로를 해 주신다.

(열왕기상 19:5-7)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어루만짐으로 마음을 위로하셨다. 지금 기도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지쳐있다면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의 기도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다면 그냥 신음소리만 내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심을 보여 주셨다.

엘리야가 짧은 시간에 했던 세 번의 기도는 모두 응답을 받았다.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 적용 질문 3

- 1) 사역을 하고, 섬기는데도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 2)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조용히 다가와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셨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 3)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그분을 경험하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